

강진 마랑항, 해양레저관광 시대 개막

강진군이 남해안 해양레저 거점 도시 만들기의 전략 가운데 하나로 꾸준히 추진해온 바다낚시 어선 유치가 드디어 첫 결실을 맺고 마랑항에서 최근 출항식을 가졌다.

출항식은, 강진원 강진군수를 비롯한 군의장, 군의원, 도의원, 마랑면 기관·사회단체장, 낚시어선 관계자, 강진산단 입주기업인 SDN 관계자, 군민 등 모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출항식은 타지역에 있는 바다낚시 어선 7척을 유치함으로써 침체돼 있는 강진군의 해양레저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시발점으로 삼아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도시로의 새로운 도약을 널리 알리는데 큰 의미가 있다.

바다낚시어선 유치는 강진군의 민선8기 60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지금까지 수산, 양식 등 1차 산업 위주의 어촌 경제를 3차 산업인 해양 레저 관광으로 전환해, 미

래 먹거리를 먼저 준비한다는 전략에서 출발했다.

그동안 마랑항에서는 일시적으로 바다낚시 어선이 운영된 적은 있지만, 장기적 혹은 정기적인 운행이 드물어 바다낚시 어선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타지역에서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년 동안 머물렀던 어선들은 생활 기반 및 선적항 이주로 인한 낚시객 모집, 새로운 낚시포인트 개발 등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불확실성 속에서 선뜻 이전할 의지를 보이지 않아, 군은 삼고초려의 정성을 들여왔다.

그동안 군에서는 바다낚시 어선 이전을 위해 지난해 강진원 군수의 녹동항 방문을 비롯해 안도항, 회진항, 서망항, 군산항 등 낚시꾼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항구를 방문하고, 낚시어선협회임원 및 선장 등 다양한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에 설득을 거듭해 왔다. /박종욱 기자



강진군이 남해안 해양레저 거점도시 만들기의 전략 가운데 하나로 꾸준히 추진해온 바다낚시 어선 유치가 드디어 첫 결실을 맺고 마랑항에서 최근 출항식을 가졌다. /강진군 제공

영암군-중소기업음부즈만 기업 규제 해결 간담회 가져

영암군(군수 우승희)과 중소기업음부즈만이 최근 대불산단에서 '기업 규제 해결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대불산단 기업의 애로 사항을 현장에서 듣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우승희 영암군수와 박주봉 중소기업 음부즈만, 대불산단 기업체 대표 등이 참여해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외국인 투자 지역 임대료 감면 ▲녹지 진입도로 설치 기준 완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기준 확대 등에 대한 중앙부처의 답변과 개선방안이 공유됐고, 조선업 현황과 대처방안에 대한 토론도 열렸다.

박 음부즈만은 사전 건의사항, 간담회 제출 의견 등을 토대로 담당부처와 협의해 기업 애로를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중앙부처 및 음부즈만과 협업해 기업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철 기자

신안군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 재계 결혼이주여성 3년 만에 가족들과 함께 친정나들이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했던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사업을 3년 만에 재개한다고 밝혔다.

최근 신안군 가족센터 회의실에서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사업에 선정된 11가정, 22명의 부부와 18세 미만 자녀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정나들이 위한 항공권을 배부하고 일정 및 유의 사항을 전달했다.

신안군은 올해 4천만원을 들여 1가정당 왕복 항공료와 교통비 등을 포함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하며 장기간 친정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 중 친정 나들이 지원 여부, 다자녀, 국적취득, 교육참여도 등을 고려해 11가정(베트남 7가정, 캄보디아 3가정, 중국 1가정)을 선발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우리 지역에

서 열심히 살아온 결혼이주여성의 친정 방문을 축하하며 남편과 자녀들에게 아내와 엄마의 나라 문화체험을 통해 가족이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며 안전한 여행길을 당부했다.

또한, 내년도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기지원 여부, 다자녀, 국적취득, 참여도에 앞서 지인소개 결혼성사 실적을 최우선으로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신안군은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 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안정적 정착을 위한 상시 한 국어반 운영, 취·창업 교육, 온라인 국적 취득 교육 및 찾아가는 자녀 생활 교육 등 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 언어 소통과 자녀 양육, 한국 문화 적응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장흥근 기자

목포, (주)세원하드페이징과 투자협약 체결

목포시가 목포세라믹산단에 입주한 (주)세원하드페이징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도도가 최근 전남 서남권 발전을 위해 전남도도의 6개 시군과 8개 기업과 함께 전남도청에서 투자협약을 체결했는데, 이 자리에서 (주)세원하드페이징은 목포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홍률 목포시

장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주)세원하드페이징 관직원 대표, 시군 단체장 및 기업대표 등 전남 서남권 6개 시군 8개 기업이 참여했다.

목포시 투자기업인 (주)세원하드페이징은 전북 완주에 본사를 두고 2018년 목포세라믹산단에 입주한 세라믹 관련 제조업체로, 올해 7월 중 목포세라믹산단 미분양부지 1필지(5,033.4㎡)에 총 100억원 규모를

신규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2024년까지 세라믹산단 2필지를 추가 매입해 1만9천950㎡의 부지에 총 500억원을 누적 투자함으로써 세계적인 세라믹 전문기업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목포세라믹산단이 명실상부한 세라믹 산업 최고의 클러스트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인력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생태 기자

무안군 4-H연합회 과제 답 풍년기원제

무안군(군수 김산)은 최근 몽탄면 구산2리에서 무안군4-H연합회(회장 양현승)가 과제 답에 모내기하고 풍년기원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제 답 운영은 '무안군4-H연합회'가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활동 중 하나로, 회원이 공동으로 벼를 재배해 농업 신기술을 실증하고 수확물을 요양원 등에 기부할 계획이다.

이날 모내기는 짙은 볍씨를 눈에 직접 뿌리는 드론 항공 직파로 진행했는데 이는 모판 준비를 위한 약 1개월의 기간과 투입 인력을 줄일 수 있는 신기술로, 과제 답 900평 중 450평에 적용하고 나머지는 일반 이앙을 해 향후 수확 수량과 품질 등을 비교 실증할 예정이다. /고민재 기자

함평, 돌머리지구 어촌뉴딜300사업 박차

함평군이 역점 추진 중인 '돌머리지구 어촌뉴딜300사업'이 공정률 80%를 보이며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주요사업은 ▲해안안전시설 확충 ▲돌머리 커뮤니티센터 ▲귀어귀촌빌리지(8개동) ▲돌머리 방앗간 ▲해수품질 정비 ▲돌머리·주포항 시설 및 경관 정비 등이다. 군은 오는 7월 돌머리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기존 해수욕장, 갯벌탐방로 등의 시설을 개선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휴양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해수와 유황석을 활용해 맘을 빼며 쌓인 피로를 풀 수 있는 돌머리 해양치유(해수찜)센터도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운영될 예정이다. /이문수 기자

군은 오는 7월 돌머리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기존 해수욕장, 갯벌탐방로 등의 시설을 개선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휴양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해수와 유황석을 활용해 맘을 빼며 쌓인 피로를 풀 수 있는 돌머리 해양치유(해수찜)센터도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운영될 예정이다. /이문수 기자

